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 그림 하나



그림 : 조남준

닭들의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1.

닭들의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어스름하니 새벽이 밝아오면 부지런한 닭들의 울음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병아리들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 지렁이 잡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장난을 치면서 즐겁게 보냈다. 해가 지면 병아리들은 하나 둘 집에 돌아가 엄마 품에서 달콤한 잠을 잤다.

2.

어느 날 대장 수탉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수탉은 벼슬을 높이 세우고 말했다. “지금 우리 마을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옆 마을 닭들이 매년 열리는 우수 닭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병아리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지렁이 잡는 법, 빨리 달리는 법, 그리고 부화에 관한 이론 교육까지 말입니다. 우리 병아리들을 그냥 놔두서는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공공 훈련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병아리들에게는 상을 주고 더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고급 훈련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장차 이 닭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제공되도록 할 겁니다. 폭신하고 넓은 숙소를 제공하고, 고급 지렁이를 상납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

엄마 닭들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로 불안의 바람이 스쳐지나갔다. 뿔뿔이 흩어진 엄마 닭들은 병아리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애들아.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놀면 안 된단다. 이제부터 엄마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훈련을 시킬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야 해.”

제일 어린 병아리가 말했다.

“엄마, 그럼 이제 엄마하고 못 노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자 엄마 닭은 마음 한편의 아릿함을 억누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엄마한테 고마워 할 거야.”

하지만 병아리들을 데리고 달리기 훈련을 시키던 엄마 닭은 이내 지쳐버렸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엄마 닭은 고민이 깊었다. 그 때 마침 옆 집 아줌마 닭이 알려준 소식에 귀가 솔깃했다.

“아, 글썸, 전직 우수 닭 출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병아리들을 훈련시켜주는 데가 있대요. 매일 지렁이 20마리만 잡아주면 책임지고 우수 닭으로 만들어준대요. 벌써 줄을 섰다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엄마 닭은 노느라 정신없

는 병아리들을 데리고는 총총 걸음으로 달려가 전직 우수 닭 출신 선생님을 만나 허리를 굽신거리며 등록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한숨 놓았다.

4.

다음 날 사설 훈련소를 간 병아리들이 해가 저도 돌아오지 않았다. 찾아가보니 우수 닭 출신 선생님이 말했다.

“어머님. 남들과 같이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밤 10시까지 훈련을 시키고, 토요일도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어머님. 감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엄마 닭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대답했다.

“넵”

엄마 닭은 늘 재잘대던 새끼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허전했다. 건초더미에 누워 서로 몸을 포개고 뒹굴거리며 킬킬대던 시간이 아련하니 그리웠다. 하지만 엄마 닭은 이제 월말에 납부해야 할 지령이를 잡기 위해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풀숲을 찾아 다녀야 했다.

5.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병아리들의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었다. 엄마 닭은 병아리들의 책가방을 뒤져 성적표를 찾아냈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했으니 혹시 1등?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펼친 엄마 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5등급” 딱 중간이었다. 이럴 수가. 그날 저녁 엄마 닭은 병아리들을 앞에 앉혀놓고 따져 물었다.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병아리들에게 엄마 닭은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한 마디를 내뱉었다.

“너희들 닭대가리아?”

고개를 푹 숙인 병아리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6.

엄마 닭은 다음 날 바로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선생님은 굳은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아시겠지만 어머님. 자녀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주의가 좀 산만합니다. 남들만큼 해서는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밤 11시까지 하고 일요일까지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 감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엄마 닭은 이번에도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넵.”

7.

이제 병아리들과 만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일요일 아침이면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맛있는 지렁이 튀김 요리를 먹고 수다를 떨고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다. 일요일 아침에 졸린 눈을 부비며 터덜터덜 훈련소를 향해 걸어가 는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엄마 닭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졌다.

8.

그 날은 유난히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병아리들을 사설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서는 엄마 닭의 눈에 들어온 건 옆집 병아리였다. 온 가족이 재잘거리며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

“애, 휴식이 아니니? 안녕하세요? 휴식이 어머님. 어디 가세요?”

“우리 오늘 소풍 가요. 날이 너무 좋아서요.”

“휴식이는 훈련소에 안 가요?”

“네. 휴식이는 일요일에는 훈련 안 해요. 좀 쉬어야지요. 매일 훈련만 하면 기분도 다 운되고 능률도 안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엄마 닭은 하하 호호하며 소풍 가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늘을 쳐다 보았다. 맑고 높은 하늘에 눈부신 해가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다. 엄마 닭은 홀로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문을 열고 병아리들의 빈 방에 들어갔다. 텅 빈 방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 닭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털썩 주저앉아 한참동안 병아리들의 잠자리를 쓰다듬던 엄마 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데려와야겠다.”

9.

훈련소로 찾아가는 길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니지. 지금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나 머리를 흔들며 다짐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사설 훈련소 문을 열자 병아리들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웬 일이야?”

“애들아, 가자. 이제 일요일은 집에서 놀자.”

“엄마, 진짜야? 와!”

그때였다. 뒤에서 선생님이 나타났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엄마 닭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고맙지만 이제 그만 할래요. 지금 내 새끼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더 소

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내일 보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은 참 세상 모른다는 눈빛으로 입맛을 썉썉 다셨다.

10.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엄마 닭과 병아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이제 정말 일요일에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래, 이제 일요일에는 아무 생각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기로 하자. 어때?”

“좋아요.”

그날 밤까지 엄마 닭은 병아리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파묻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엄마 닭은 모처럼 아주 달콤한 잠을 잤다.

11.

다음 날 엄마 닭은 아예 사설 훈련소를 끊어버렸다. 밤에는 일찍 재웠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병아리들이 생기가 돌아왔고 성적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병아리들은 훈련을 무사히 받고 건강한 닭으로 성장해갔다. 한편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훈련을 받던 병아리들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 낮에도 꾸벅꾸벅 조는가 하면 잔소리를 하는 엄마 닭을 물어뜯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제 병아리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소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다.

12.

그 와중에도 사설 훈련소들은 더 많이 생겨나 병아리들을 모집하고 있다. 인근 마을 훈련소에서는 밤 12시까지 훈련시킨다고 홍보하자 다른 훈련소들은 한술 더 떠 새벽까지 지도해준다고 나섰다. 급기야 24시 영업도 나왔다. 엄마 닭들은 서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

“옛날이 그리워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해요. 다 같이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엄마 닭은 사설 훈련소 심야영업 금지와 일요일 셧다운을 주장하는 엄마 닭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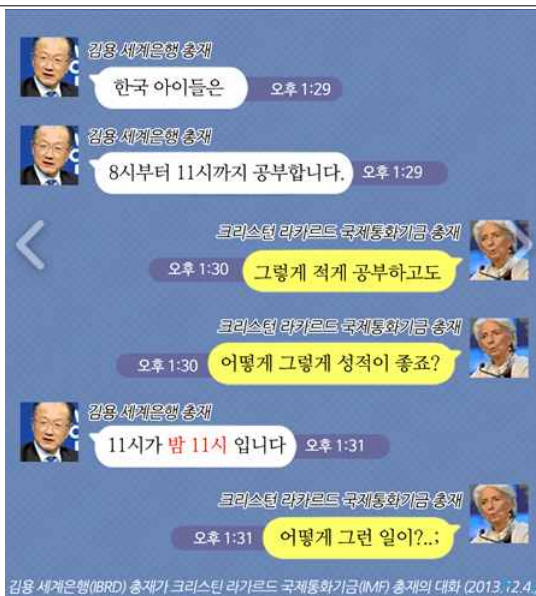
학원·과외 일요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진우(섬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과 문제점

일요일이 사라진다면?

1.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요일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출근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요일에도 가방 메고 학원 가는 것은 왜 당연하게 생각 할까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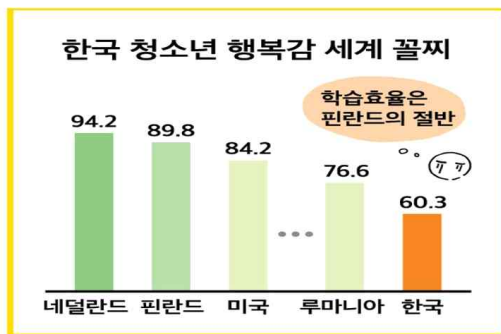
2. 한 번은 김용 총재가 크리스틴 총재에게 대한민국 학생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한다고 하자 그렇게 조금 공부하고도 어떻게 성적이 좋으냐고 반문했습니다. 11시가 오전이 아니라 밤 11시라고 알려주자 더욱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학생들이 밤 12시에도 심지어 일요일까지 가방 메고 학원 뺑뺑이를 도는 현실은 놀랄 만큼 이상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고단한 현실



3. 청소년들의 주당 학습 시간은 OECD 평균 34시간인데 한국 고등학생들은 76시간으로 2배를 넘습니다.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16시간이나 초과합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학생들은 과로사 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감은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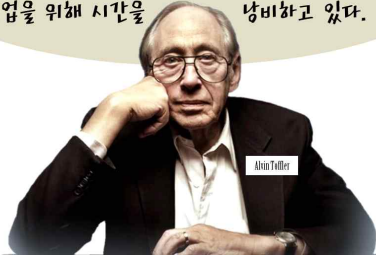
4.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꼴찌 수준입니다.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5. 더욱 억울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해서 공부하는데 피사 성적은 핀란드와 비슷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학습시간은 절반이고 많은 시간을 여가 생활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 학생들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6. 이런 현실을 간파한 앨빈 토플러는 2007년에 한국에 와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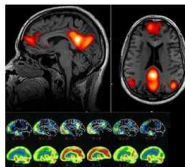
왜 낭비인가?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약화
2. 수업 집중력 저하
3. 사교육비와 시간

7. 왜 낭비일까요? 학원에 의존할 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밤늦게 학원을 다니면 학교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면 더 안 좋아 집니다. 저는 일요일에 쉬는 것이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자녀에게도 일요일은 학원을 안 갈뿐 아니라 책도 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일요일에 잘 쉬면 성적도 올라갑니다.

디폴트모드 네트워크

- > 디폴트모드 네트워크는 평소에는 뇌의 배경에 깔려 있다가 **실 때에 작동되는 자동 시스템**이다. 이 부위에서 **자아성찰, 자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 창의성이 발현**된다. 켈렌대 카이 포겔라이(Kai Vogelely)는 뇌의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야말로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 > 전 세계 노벨상의 23%를 받은 유태인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철저히 준수한다. **쉬는 것이 창의성과 관련된다**는 방증이다.



8. 정말 그럴까요?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뇌과학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는 시간에 뇌는 디폴트 모드네트워크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정말 뇌가 창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성찰, 자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 창의성이 활성화됩니다. 포겔라이라는 학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계 노벨상 23%를 받은 유태인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철저히 준수한다고 합니다. **쉬는 것이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호기심과 멀어지는 교육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근면하며 결정적으로 성실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10살 짜리 어린이가 자정까지 '성실하게' 사교육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호기심은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시달려 스스로 호기심을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벨화학상 수상한 뷔트리히 교수 (2019.9.28)

9. 최근 노벨상을 받은 뷔트리히 교수는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근면하며 결정적으로 성실하다. 그런데 때론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해 본다. 10살 짜리 어린이가 자정까지 '성실하게' 사교육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호기심은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시달려 스스로 호기심을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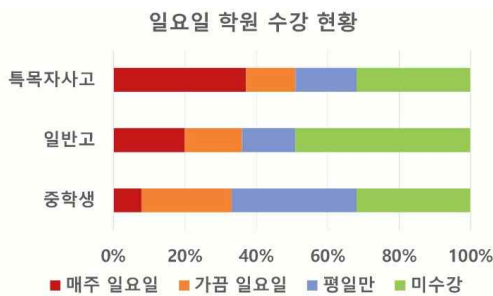
공부에 대한 오해(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 원장)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듣고 외우고 필기할 때만 뭔가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안정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휴식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촬영해보면 아무 것도 안 하는 순간에 굉장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폴트모드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휴식은 공부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안해서 자꾸 더 해라 더 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괴로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쉽고 있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10. 서천석 소아정신과 원장도 “휴식은 공부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꾸만 불안해서 더 해라 더 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 괴로운 시간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쉬지 못하는 현실 - ①



출처: 서울시교육청(2016).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상한제도입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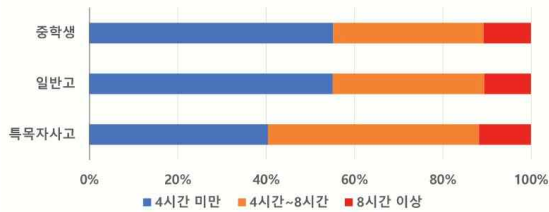
11.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비율입니다.



12. 초등학교 6학년생이 평일에 2-3개 주말에는 3-4개를 다닌다고 합니다. 주5일제가 주말 학원의 수요를 더 늘린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현실 - ②

일요일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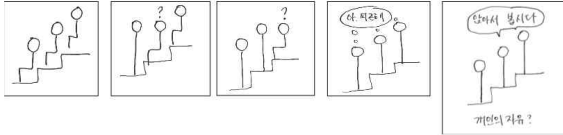


13.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은 4시간을 넘고, 8시간을 넘는 비율도 10%를 넘습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2016).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상한제도 입방안 연구

■ 과열경쟁의 원인과 제한의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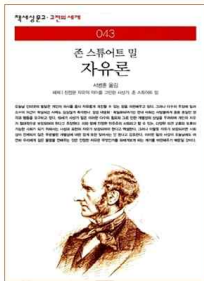
지금은 극장에서 다 일어서서 보는 상황



만약 극장에서 앞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의 사교육 상황도 마치 이와 같다. 누군가 심야에도 학원을 다니니 불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다니게 된다. 90년대는 일요일에는 원래 학원도 쉬었는데 일부 학원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무제한의 경쟁이 과열 경쟁을 불러오고 모두가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따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앉자”**라고 해야 한다.

14.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마치 극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이 안 보이니 일어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입시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심야에도 학원을 다니니 불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다니게 됩니다. 90년대는 학원도 일요일에는 쉬었는데 일부가 일요일 영업을 하면서 확산이 되고 과열 경쟁으로 치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피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앞사람을 따라서 모두 일어설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앉자”**라고 해야 합니다.

학원 일요일무제의 정당성



“일요일 휴무는 매우 유익한 관습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근로 계급 사람들 사이의 협정 없이는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하자는 협정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부분의 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공휴일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5. 그렇다면 다 같이 쉬자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휴무는 매우 유익한 관습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 있어야 성립된다. 어느 누군가 일요일에도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모두가 휴식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vs 적정경쟁

정치 > 정치일반
주꾸미 어획량 49%·고등어 87% 증가...“금어기 효과”

등록 2019-10-21 09:30:13

수산자원고갈 고착화...최근 연근해 어획량, 최다어획 1986년은 58.4% 수준
 박원우 "금어가 금지제정, 수산자원회복에 필수적...소신있게 추진해야"

그린벨트
사전 선거운동 금지
휴무일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은 공멸을 부른다.
 적정 규제를 통해 모두가 유익해진다.

16. 각자 자유롭게 고기를 잡다보면 어린 물고기 씨를 말려버려 다 망합니다. 금어기를 정해서 보호해야 모두 유익합니다. 그린벨트도 그렇고, 선거운동도 그렇고, 휴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규제 없으면 무한경쟁으로 치달아 사회 전체가 공멸합니다.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2009년에 5대4로, 2016년에 6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것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17.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영업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5대4로 두 번째는 6대3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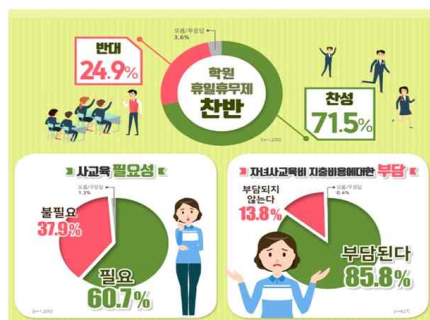
학원휴일휴무제 찬반 여론



출처: KSOI, 서울시의회(2017.3)

18. 국민여론도 지지합니다.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67%가 찬성함으로써 반대 14%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사교육 필요하다는 부모들도 일요일 휴무는 찬성



출처: 경기도 교육청,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19)

19. 경기도민의 경우는 71.5%가 찬성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60%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조차 일요일까지 학원 다니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다 같이 안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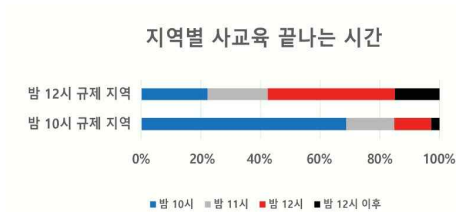
■ 교습시간제한의 실효성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실효성



20. 이처럼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풍선 효과인가? 냉장고 효과인가? 냉장고 효과란 냉장고가 좁아서 큰 걸 사면 또 꽉 차는 현상처럼 공급이 수요를 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원영업시간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수요도 따라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학원영업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수요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증적 데이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야교습 수요 감소율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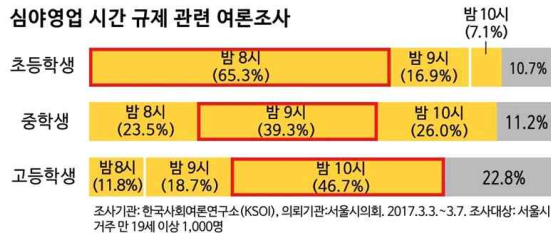
21. 밤 12시까지 하던 학원시간을 밤 10시로 줄인 지역의 경우 심야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학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몰래 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밤 10시 대치동, 만약 심야교습 제한이 없다면?



22. 지금 사진은 대치동에서 밤 10시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입니다. 만약 학원 시간을 밤 12시로 다시 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수는 그 때까지 하게 될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업자들은 심야 교습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23.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밤 10시도 부족하다. 초등학생들은 밤 8시, 중학생들은 밤 9시까지로 더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학원업계 이익을 위해 교습시간을 늘려야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시요.

■ 팩트 체크



24. 다음으로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측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팩트 체크 1.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15.4%라구요?

- ✓ 2019년 9월 24일 서울교육청 시민참여단 속의토론회에서 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학생 15.4%, 학부모 13.4%가 찬성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음.
- ✓ 이는 기존의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제주도 등의 여론조사 결과와 너무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이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였음.
- ✓ 여론조사 기관으로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했다고 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한 것이 아님. 학원총연합회의 자체 설문결과를 받아서 분석한 것임. 조사 방식은 미확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자사 명칭을 빼 줄 것을 요청함)

25. 학원측의 여론 조사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비율이 1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학원 연합회에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통계처리만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 집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가 임의로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갖고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 1.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15.4%라구요?

중학생 대상			일요휴무제 찬반의견		
			찬성	반대	합계
교과학원 수강여부	수강	반도	603	186	789
		비율(%)	76.4	23.6	100
	미수강	반도	280	101	381
		비율(%)	73.5	26.5	100
	합계	반도	883	287	1,170
		비율(%)	75.5	24.5	100

-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원 일요 영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설문에는 각 자치구별로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학교 총 25개교 및 고등학교 총 25개교가 설문 참여하였으며, 학년별로 한 학급씩 설문 참여하여 참여 학급의 총 수는 150학급에 달하였다. 설문 참여 학생의 수는 중학생 2,131명 및 고등학생 2,082명으로 총 4,213명에 이르렀다.

26.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말로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한 조사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조사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팩트 체크 1.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15.4%라구요?

- ✓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발언권이 없는가? 그들이야말로 사교육이라는 불공정 게임의 피해자들이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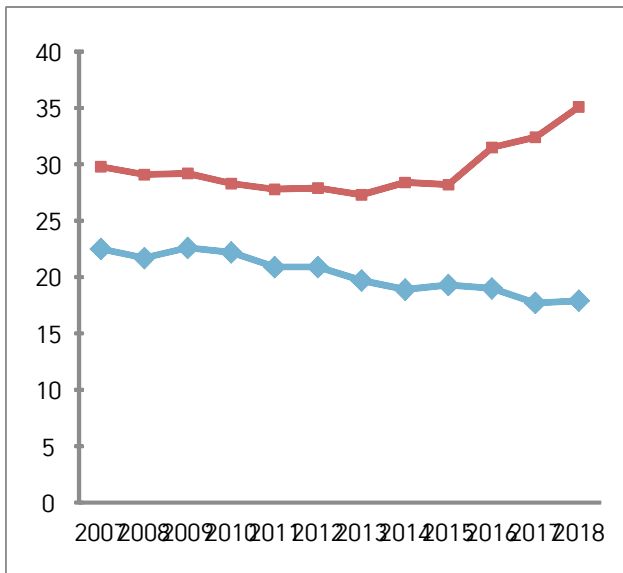
27.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학원측은 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반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가난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배제해야 합니까? 그들이야말로 사교육이라는 불공정 게임의 피해자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까? 모두에게 물어야지요. 그러므로 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학원측의 설문조사는 대상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그것 자체도 사실과 거리가 멍니다.

팩트 체크 2 심야교습제한 이후 개인 과외가 늘었다?

✓ 실제로 늘지 않았다. 개인 과외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누적적으로 숫자가 증가하여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줄어들었다. 오히려 학원이 더 늘어났다.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교과 사교육	46.6	45.3	45.9	44.9	43.1	42.2	40.8	40.9	41.6	43.2	43.4	45.5
개인과외+그룹과외	22.5	21.7	22.6	22.2	20.9	20.9	19.7	18.9	19.3	19	17.7	17.9
개인과외	13.9	14.0	14.7	14.4	13.6	13.4	12.8	12.3	12.8	12.5	11.1	11.4
그룹과외	8.6	7.7	7.9	7.8	7.3	7.5	6.9	6.6	6.5	6.5	6.6	6.5
학원수강	29.8	29.1	29.2	28.3	27.8	27.9	27.3	28.4	28.2	31.5	32.4	35.1
방문학습지	2.4	2.0	1.7	1.5	1.1	0.9	0.6	0.6	0.6	0.5	0.7	0.6
유티인터넷 등	5.6	5.0	5.6	5.1	3.8	2.9	2.4	2.4	2.2	3.3	3.3	4.1

(자료 출처: 통계청)



28. 두번째로 검증해야 할 주장은 풍선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학원측은 심야교습 이후에 개인과외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개인 과외는 통상 폐업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숫자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실제로 확인하려면 통계청 자료를 봐야 합니다. 사교육 참여 유형을 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외는 줄었고, 학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학원측에서 주장하는 과외로의 풍선효과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 반론과 답변



29. 이상으로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 보았고, 다음으로 몇 가지 반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1.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 ✓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 조건 하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 시장 경쟁이 치열해도 주5일제나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호하는 것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
- ✓ 마치 과속을 제한하듯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이미 심야영업금지과 같은 제도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내고 있음. 이를 더욱 확대 발전 시켜야 함.

30. 근본적으로 입시경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입시경쟁을 완화하면 좋지만 당장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해야 할까요? 현재 입시경쟁 하에서도 심야교습제한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반론 2. 심야는 규제해도 일요일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 ✓ 심야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요일도 휴식 시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왜 학생들만 예외인가? 성인들에게 일요일도 출근하라고 하면 어떨까? 이미 학생들은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서 공부한다. 성인들보다 학생들의 휴식이 훨씬 더 절실하다.

31. 심야는 규제해도 일요일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에게 일요일도 출근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왜 학생들만 예외입니까? 심야와 마찬가지로 일요일도 휴식 시간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미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더 과로 상태입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학생들에게 휴식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절실합니다.

반론 3. 학원을 단속하면 몰래 하거나 개인 과외가 늘어난다?

✓ 학원과 동시에 개인 과외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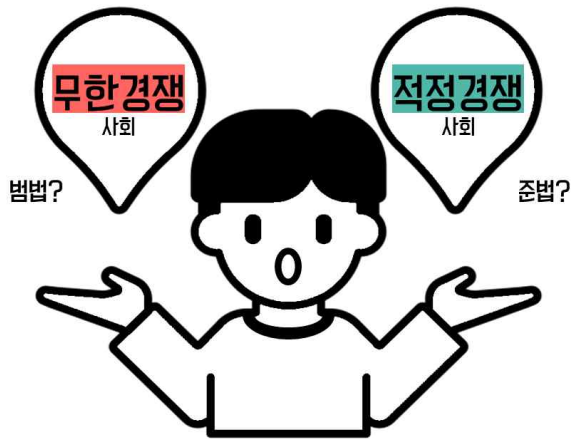
(김영철 외 연구, 2017, 서울시교육청)

32. 과외를 하거나 몰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할 것은 학원뿐 아니라 과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외든 학원이든 몰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74.8%는 쉬거나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17.4%는 다른 날로 옮기겠다고 했고, 4%가 몰래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4%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다수는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에 달려 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습니다.

반론 3. 대책

- ① 사회적 분위기 조성
- ② 법 실효성 높이기: 신고포상금제 강화, 처벌 강화, 이용자 동시 처벌
- ③ 제도의 전체적 유익을 고려하여 시행

33. 그래도 몰래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몰래 법을 어기는 것은 컨닝과 같이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행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일깨우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더 활성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이용자들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법이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탈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도의 전체적 유익을 보고 시행해야 합니다.



34.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부 범법자들이 있으니 법을 없애고 무한경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든 법은 국민의 도덕성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범법자들이 많아서 이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적으로 무한경쟁, 과열경쟁의 도가니에서 혹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도 말이 많았지만 만들어졌고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무한경쟁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반론 4. 학원일요휴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 상위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요일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음.
- ✓ 법제처 의견은 하나의 참고 사항
- ✓ 요일은 시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 ✓ 만약 요일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 토요일 22:00시부터 익일 05:00시까지로 규정하면 됨. 이미 독서실 규정은 24:00부터 익일 05:00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시민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음. 시민들은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면 법령은 만들어짐. 심야교습조례도 먼저 만들어짐.
- ✓ 조례가 아닌 국회가 전국 단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함. 그러나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음. 서울시 조례는 이를 요청하는 과정의 수단임.

35. 학원일요휴무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요일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같은 확정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일은 시간의 범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강지원 변호사도 시간은 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요일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즉 현재 독서실의 경우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도 토요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셋째,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시민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학원일요휴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국회나 법률전문가가 고민해서 만들면 됩니다. 사실 학원심야교습 조례도 먼저 만들어진 다음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국회에서 나중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합니다.(참고자료 26쪽 참조)

반론 5. 학원을 휴무해도 어차피 공부할 학생은 공부한다?

- ✓ 학원의 영입은 전체적인 경쟁 강도를 높이고 불안을 조장하여 다수를 사교육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크다.
- ✓ 학원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자기 몸에 맞게 공부하게 되고 크게 무리하지 않게 된다.
- ✓ 이왕이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학원비도 들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므로 더 낫다.

36. 학원을 휴무해도 어차피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비교적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영리적 목적의 사교육이 전체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쟁 강도를 높이고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6. 일요일에 학원을 다녀야 하는 학생이 있다

- ✓ 토요일도 가능
- ✓ 평일로 조정하면 되기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 ✓ 다소 불편해도 그것에 맞추어 적응하게 된다 (일반 회사나 관공서 병원 등도 휴업일에 맞추어 일한다)
- ✓ 일요일까지 가는 학생은 대체로 사교육 과잉 계층이다
- ✓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 없다
- ✓ 경쟁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 같이 더욱 피곤해진다

37. 주말에 학원을 가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한 학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도 있고, 평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은행이 일요일에 휴무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에 맞추어 조정하고 적응합니다. 지방에서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일요일까지 학원을 가는 학생들은 이미 사교육 과잉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반론 7. 학원을 안 다녀도 스마트폰 때문에 못 쉬다

- ✓ 학원을 다니면 더 못 쉬다

38. 학원을 안 다녀도 스마트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갔다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쉬지 못합니다.

반론 8. 스테디카페가 늘어난다

- ✓ 독서실과 달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작용이 심하면 법령을 정비하여 대처하면 된다

39. 스테디카페와 같은 형태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과 달리 스테디카페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어 대처하면 됩니다.

반론 9. 일요일에 쉬면 학력이 저하된다

- ✓ 한국 학생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40. 일요일에 쉬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10. 학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

- ✓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을 시키면서까지 하는 영리 행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 ✓ 강사들의 휴식권도 소중하다.
- ✓ 평일날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할 수 있다고 학원 대표자도 언급한 바 있다. (EBS 교육대토론, 2015.12.4)
- ✓ 평일 강제야자를 금지하고 학원일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다

41. 학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을 시키면서까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휴식권도 소중합니다. 평일날 강제야자를 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학원 대표자의 공개적 제안도 있었습니다. (EBS 교육대토론, 2015.12.4.) 평일 강제야자를 금지하고 학원일요휴무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 결론

균형을 회복하자



42.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 있는 교육은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탈이 납니다. 병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이 늘어납니다. 균형을 회복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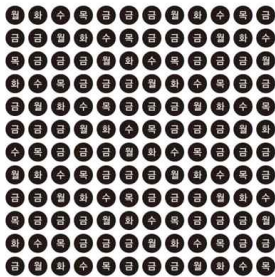
인간의 속도로 달리자



43. 학교앞 천천히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느리게 가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도 일요일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과속을 제한하듯이 인간의 속도로 갑시다.

아이들에게 숨쉬는 달력을 선물합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달력!



아이들에게 **숨쉬는** 달력을!



44. 아이들에게 꼭 막힌 달력이 아니라 숨쉬는 달력을 선물합시다.

일요일은 쉬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 1841년 프랑스는 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동 노동 금지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 2019년의 대한민국은 밤 12시에도, 일요일에도 학원 가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이제 밤에는 자고, 일요일은 쉬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쳃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45. 일요일은 쉬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1841년 프랑스는 8세 미만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밤 12시에도 일요일에도 학원가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이제는 밤에는 자고, 일요일은 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STOP! 월 화 수 목 금 금 금

YES! 심이 있는 교육



46. 우리 모두를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효율도 없는 무한경쟁의 쳃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스톱! 월화수목금금. 예스! 심이 있는 교육. 이제 그 브레이크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생각해 볼 주제

1. 학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한 심야영업규제에 대해 동의하는가? 만약 반대한다면 밤 12시까지 늘려주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심야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다. 그런데 학원연합회는 왜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원할까?

2.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전체의 피해를 가져오는 수가 있다. 마치 물고기를 각자 자유롭게 잡다보면 모두가 피해를 입듯이. 그렇다면 학원영업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인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 가치인가? 만약 학원총연합회가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아예 24시간 무제한 영업을 허용하면 어떤가? 그 결과 새벽까지 초등학생을 혹사시키는 경우도 예전에 발생했다. 만약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그 적절한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은 얼마일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까?

3. 학원총연합회는 학원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15% 정도만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는 매우 다르다. 어느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

4. 학원총연합회는 학원교습시간 제한 이후 과외가 대폭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그 반대다. 어느 것이 사실일까?

5. 학원총연합회는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의 행복감이 안 다니는 학생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학원일요휴무제가 학생의 행복감 증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집이 잘 살거나 공부를 잘 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혹은 남들도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의 불안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제다. 만약 학원일요휴무제가 실시되어 모두가 다 같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도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이 있을까? 그리하여 학원을 가는 대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을까? 학원을 다니는 것이 행복감을 높인다면 세계에서 특이할 정도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 참고 자료

1. 사교육 시간과 학생만족도 상관성(김영철 교수 연구)에 대하여

- 김영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저자의 요약: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체제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여가시간의 확보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통계적 상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사교육의 절대 시간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평일 사교육의 감소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일요일의 추가적인 여가시간 확보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통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김영철 교수 기고문: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생각해보면 일요일휴무제의 취지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학원 수강에 중독된 학생들이 이날 하루라도 '자기주도학습의 날'로 삼아보면 어떨까? 옆자리, 옆집 친구들이 일요일에 학원을 가니 불안해서 마냥 따라가던 행태는 최소한 사라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일요일에 푹 쉬어야 월요일에 학교 가는 게 기대되고 또 기다려지지 않겠는가?(김영철, 나라경제 2017년 3월호, 월화수목금금금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

- 논평: 학원 다니는 학생이 더 행복하다?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현재 전체적으로 일요일에도 학원 가는 분위기 속에서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못 가거나, 공부를 포기해서 안 가는 여러 경우가 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데 일요일에 학원을 가고 안 가고가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저자도 이것이 인과 관계가 아님을 확인했다. 다만 일요일 사교육 시간과 행복감이 현재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전제가 현재의 구조 속에서라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남들이 가는 상황에서 학원을 안 가는 것은 불안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학원일요일휴무제가 도입이 되어 다 같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그 시간에 마음 편하게 쉬거나 여가활동을 즐기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원을 안 가는 것이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전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2-1.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에 대한 강지원 변호사의 의견(2019.10.19.)



프로필: 사법시험
수석 합격. 전 청
소년보호위원장,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 해석을 ○○같이 했다. 교육감으로서는 해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해석이 어떻게 해서 엉터리라는 걸 이야기 해 줄테니 받아 써 보라. 지금 법령 해석을 보면 4가지 법과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다. 첫째 법 2조 1호와 시행령 5조 3항 5호 두 가지는 교습일에 관한 규정이다. 법 16조 2항하고 시행령 17조의 2항 이 두 가지는 교습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다. 교습일과 교습시간은 근거 규정이 다르다고 했다. 이게 황당한 해석이다. 각 조문을 찾아 봤다. 먼저 법 2조 1호는 학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서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나올 근거가 없다. 그냥 30일 이상 하면 학원이라고 규정한다는 이야기다. 휴일과 무관한 규정이다.
- 시행령 5조 3항 5호는 학원 설립 신청서를 낼 때 원칙을 포함하라고 되었는데 원칙에 포함될 내용이 여러 개 중의 하나가 휴강일이다. 신청서 낼 때 휴강일 써내라는 것이지 휴업일에 대한 것과는 무관하다. 교습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깜짝 놀랄 정도다.
- 교습시간에 관해서 첫째가 16조 2항인데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교습일을 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일요일날 교습시간도 정할 수 있다. 평일도 일요일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을 정하고 일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 령 17조 2항은 교습비 조정 명령할 때 교습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게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인데 이걸 교습일이 언제냐 오는 아무 상관없는 규정이다. 그런데 교습일과 교습시간을 구분해서 교습시간에 관한 것만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전혀 교습일을 휴일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가 전혀 없다.
-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교습일과 휴강일을 정했다는 것인데 휴강일을 포함하고 말고 하는 규정은 아니다. 평일 휴강일 규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규정이다.
- 그런데 후단에 교습시간과 교습일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라며 꼬리를 내렸다.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하는 단서가 있다. 뭣 때문에 안 되느냐? 학원 영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 양심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다. 당연히 학원 영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무식한 해석이다. 법령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교육청이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아예 상위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 전국 차원에서 법 개정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독서실 규정이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제한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독서실 규정처럼 22시부터 익일 05시로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2-2.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시민자치감사포럼 대표) 의견(2019.10.22.)

- 법제처 유권 해석이라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자문에 불과하다. 예전에 공공기관 내에 법률팀이 없을 때 자문을 받곤 했는데 요즘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추세다.
- 법률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날 야간에는 가능하고 휴일에는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평일이건 휴일이건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요일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된다.
- 교습시간은 당연히 평일뿐 아니라 일요일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

3. 서울시교육청 학원휴일휴무제 연구 보고서 중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찬반 의견

1) 학생 대상 실태조사

가. 설문 참여자 및 설문지의 구성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원 일요 영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설문에는 각 자치구별로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학교 총 25개교 및 고등학교 총 25개교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학년별로 한 학급씩 설문에 참여하여 참여 학급의 총 수는 150학급에 달하였다. 설문 참여 학생의 수는 중학생 2,131명 및 고등학생 2,082명으로 총 4,213명에 이르렀다. 각 학교 구분별 참여 학생의 수는 <표 II-1>과 같다. 본 설문조사의 설문 양식은 [부록 1]을 참고하길 바란다.

<표 II-1> 설문 참여 학생 구성

구 분	전체 (50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일반고(13교)		특목·자사고 (6교)		특성화고(6교)		계(25교)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설문 참여자	4,213	2,131	51	1,192	28	478	11	412	10	2,082	49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표 II-11> 교과학원 수강여부와 일요휴무제 찬반의견: 중학생 대상 (학생 설문)

중학생 대상			일요휴무제 찬반의견		
			찬성	반대	합계
교과학원 수강여부	수강	빈도	603	186	789
		비율(%)	76.4	23.6	100
	미수강	빈도	280	101	381
		비율(%)	73.5	26.5	100
	합계	빈도	883	287	1,170
		비율(%)	75.5	24.5	100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문조사(2014)의 부분자료 활용

2)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표 II-24> 교과학원 수강여부와 일요휴무제 찬반의견: 중학생 대상 (학부모 설문)

중학생 대상			일요일휴무제 찬반의견		
			찬성	반대	합계
교과학원 수강여부	수강	빈도	580	276	856
		비율(%)	67.8	32.2	100
	미수강	빈도	187	32	219
		비율(%)	85.4	14.6	100
	합계	빈도	767	308	1,075
		비율(%)	71.3	28.7	100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 온라인조사(2016)

한편, 본 설문에는 각 자치구별로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학교 총 25개교 및 고등학교 총 25개교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학년별로 두 학급씩 설문에 참여하여 참여 학급의 총 수는 300학급에 달한다. 설문 참여 학부모의 수는 중학생 1,075명 및 고등학생 711명으로 총 1,786명에 이르렀다.

<표II-14> 설문 참여 학부모 구성

구 분	전체 (50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일반고(13교)		특목고 및 자사고 (6교)		특성화고(6교)		계(25교)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설문 참여자	1,786	1,075	60.2	339	19.0	195	10.9	177	9.9	711	39.8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 온라인조사(2016)

3) 학원휴일휴무제 시행시 대응 태도 :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학부모 대상		학원휴일휴무제 시행시 대응 태도				
		쉬거나 개인학습	다른 날로 옮김	몰래 하겠다	기타	합계
매우 일요일을 다니는 경우	빈도	121	110	20	5	256
	비율(%)	47.3%	43.0%	7.8%	2.0%	100%
가끔 일요일을 다니는 경우	빈도	237	109	25	9	380
	비율(%)	62.4%	28.7%	6.6%	2.4%	100%
합계	빈도	358	219	45	14	636
	비율(%)	56.3%	34.4%	7.1%	2.2%	100%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 온라인조사(2016)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근로시간 연속 최대 주당 52시간

52시간

근로시간 연속 최대 주당 52시간

52시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주당 학습시간

국가	주당 학습시간
OECD	33.9
중화성	52
일본	70.1
미국	80.6

한국 청소년 행복감 세계 꼴찌

국가	행복감 점수
대한민국	94.2
일본	84.2
미국	76.6
한국	60.3

알고 계십니까? 과로사 판정기준 주당 60시간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67%	19%

2017.3. KSOI, 서울시의회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85.4%	15.7%

2017.3. 서울교육청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84.2%	60.3%

2017.11.20. - 2017.12.20.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76.6%	60.3%

2017.11.20. - 2017.12.20.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76.6%	60.3%

2017.11.20. - 2017.12.20.

학원유일무주제 찬반 여론

찬성	반대
76.6%	60.3%

2017.11.20. - 2017.12.20.

원어 있는 교육 홍보 대사

대한민국 교육홍보대사(www.restedu.net)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학원유일무주제'를 주제로 '원어 있는 교육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원어 있는 교육홍보대사는 '학원유일무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원어 있는 교육홍보대사는 '학원유일무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18세 이상, 한국인, 학원유일무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

신청 방법: www.restedu.net

문의: 02-8776-4078 / 010-7239-1998 (김진영)